융합적 사고력 갖춘 인재 양성 협력

전주대 · 고려대 등 10개 대학 참여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학술교류 협정'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을 위해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와 학술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박준구 인문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주관인 지방 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 컨소시엄(전주대 · 경북대 · 동국대 · 한남대 · 한림대)과 고려대 주관인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컨소시엄(고려대 · 숙명여대 · 순천대 · 영남대 · 충남대)이 함께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체결한 10개 대학은 향후 △교수 및 연구 인력 교류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교육(강의) 콘텐츠 공동 개발과 상호 운영 및 활용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대 이용욱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10개 대학이 대학 ·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 인문사회 융합교육 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융합인재들에게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병호 사업단장은 "인문사회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양 대학이 주관하는 두 컨소시엄이 교류 협정을 맺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인적 교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주대학교는 1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을 위해 고려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통해 3년간 약 90억 원을 지원받는다.

/장은성 기자

"'맛있는 전주심야극장' 함께 즐겨요"

3 · 10 · 24일 총 3회 팔복예술공장서 영화 · 음식 결합 프로그램 운영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화와 음식을 결합한 '오감만족' 심야극장 프로그램을 다시 선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3일과 10일, 24일 등 총 3회에 걸쳐 매일 오후 7시, 전주팔복예술공장 B동 이팝나물홀(덕진구 구렛들1길 46)에서 8월 휴가 시즌을 맞아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던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은 전주 야간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음식 관련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지역 셰프가 전주 십미(十味)를 곁들여 조리한 상영작 관련 음식과 음료를 관광객이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오는 3일에는 해고당한 일류 셰프가 푸드트럭에 도전한 후 진정으로 자신의 음식과 인생을 요리하는 미국 영화 '아메리칸 셰프'가 상영되며, 전주의 식재료로 조리된 영화 속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어 오는 10일과 24일에는 각각 '엄마의 공책'과 'B급 음식 서바이벌' 영화와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상영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공식 인스타그램(@jeonju_travel_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상영관을 통해서 즐기는 영화와 달리, 특별한 공간에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모두 즐기는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을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장천유랑극단' 골골솟솟 문화배달

공연 · 마을다큐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장수군은 '찾아가는 장천유랑극단'이 지난 7월 30일 계남면 사곡마을, 7월 31일 계북면 양악마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장천유랑극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그 주간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취약지역 등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장천유랑극단은 '예술 골골솟솟'이라는 슬로건 취지에 맞게 마을을 골고루 찾아가 장천유랑극단 공연을 중심으로 마을장터, 추억의 사진관, 마을다큐영화 상영 등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배달을 선사했다.

이번 수행단체로 선정된 가야얼마루 이은신 대표는 장수군 재능시낭송회와 협업해 장천유랑극단을 창립했으며 70~80대 군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신파 악극을 기획하고 공연함으로써 6.25를 경험한 세대의 수많은 상처와 이별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공연 이후에도 8월 28일 천천면 구신마을, 9월 28일 번암면 논곡마을, 10월 30일 산서면 능곡마을을 찾아가 공연을 개최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장천유랑극단'이 지난 7월 30일 계남면 사곡마을, 7월 31일 계북면 양악마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국비가 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군민들에게는 치유와 활력이 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장수에서 만든 공연콘텐츠가 골골솟솟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 당진시 충남합창단 교류연주회 29일 개최

군산시립합창단 제117회 정기연주회 〈당진시 충남합창단 교류연주회〉 'LOBGESANG(찬가)'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작년 12월 군산시립합창단이 당진시 충남합창단(상임지휘자 이대우)과 당진에서 협연한 이후 군산시에서 열리는 교류연주회다.

연주곡은 작곡가 샤르팡티에의 웅장하고 화려한 '테 데움(Te Deum)'과 교향곡과 칸타타를 결합시킨 멘델스존의 교향곡 2번 '롭게상(Lobgesang)'의 정통클래식을 선보일 계획이다.

'트럼펫의 아리아'로도 알려져 있는 '테 데움(Te Deum)'은 전주곡을 포함하여 10개의 작은 곡들로 구성되며, 이탈리아풍의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곡으로 군산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연주된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멘델스존의 'Lobgesang(찬가)'은 당진시충남합창단,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합합창으로 연주된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역사상 위대한 두 걸작의 연주를 통해 두 도시가 음악적 교류를 넘어 발전하고 상생하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 공연이다. 예매는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예매한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립합창단 사무국(063-454-55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